**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3~10/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 | 현천 스님 | 선요가 | 6 |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 김성철 | 오타쿠 |
| 2 |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 변영희 | 바른법연구원 | 7 |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 현진 스님 | 불광 |
| 3 | 나를 찾아가는 십우도 여행 | 오강남/성소은 | 판미동 | 8 | 스스로 행복하라 | 법정 스님 | 샘터 |
| 4 | 아난존자의 일기 1,2 | 범라 스님 | 운주사 | 9 |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 초펠 | 하늘호수 |
| 5 |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법륜 스님 | 정토 | 10 | 윤홍식의 수심결 강의 | 윤홍식 | 봉황동래 |

책세상

# 어떻게 살 것인가, 선시에서 답을 찾다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동명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4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입은 함부로 열지 말라 /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보면 마침내 도를 얻으리니 / 수행자의 바랑은 송곳을 감추어 끝을 보이지 않아야 / 이른바 훌륭한 고수로서 진실한 소식 얻으리"

책은 진각 혜심 스님이 제자 요묵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쓴 시, 선시(禪詩)로 시작한다. 책의 큰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 저자는 출가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지니게 된 화두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때 동화책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위인전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세계 명작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스님들의 에세이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시(詩) 속에서 길을 찾았고, 한때는 철학사에서 길을 찾았다며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결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선사들의 선시를 통해 길을 찾고 있다고 고백한다. 책은 저자가 자신이 읽었던 선시에서 느끼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대중에게 전한다. 곧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치열한 생각들이다.

저자인 동명 스님은 1989년 등단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 넘게 문단에서 활동했던 차창룡이다. 문단에서는 그의 시와 문학에 주목했고 그가 그려갈 앞날에 대해 기대가 컸다.

그러던 2010년의 어느 날, 저자는 조계종 前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했다. 차창룡의 이름은 그때부터 동명이었다.

수행자로서 기본을 익히고 신심을 다진 지 10년이 지나서 첫 책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냈다. 책에서 저자는 선사들의 선시를 대하며 자신이 느끼고 얻었던 사유와 마음의 변화를 밝히고 있다. 태고 보우, 진각 혜심, 청허 휴정, 나옹 혜근, 사명 유정 등 한국불교사에서 빛나는 서른두 분의 선사들이 남긴 선시를 골라 실었다.

그리고 선시를 읽는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적고 있다. 저자에 말을 따른다면 선시를 읽는다는 건 선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지식들과 함께 삶의 길을 찾는 가슴 벅찬 일이다.

저자는 선시 32편을 실고 시 한 편 한 편을 마칠 때마다 절절하게 느끼고 깨달았던 공부를 적고 있다. "팔정도의 첫 덕목은 정견이다. 무엇을 바로 보아야 할까? 먼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일 것이다."

한 편의 선시에서 '정견' 을 공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선시는 예술작품이기도 하지만,



저자인 동명 스님이 환하게 웃고 있다.

**혜심 등의 선시 32편과 교훈 실어**
**선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찾아**
**"선시 읽는다는 건 시공 초월해서**
**선사와 함께의 명상 가슴벅찬 일"**
**시인 차창룡서 출가자 동명으로**

또 한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사구게(四句偈)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겨우 네 줄짜리 시 한 편에 어쩌면 그토록 많은 이야기와 공부가 들었을까. 저자의 공부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문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만난다.

선시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모습을 시(詩)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실체가 없는 그 무엇을 굳이 글이라는 언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선시의 오묘한 의미가 존재한다.

조화 아닌 조화, 논리 없는 논리, 목적 아래 모든 것을 초월한 세계를 선어라는 상징적인 말로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자인 동명 스님은 1989년 등단해 20여 년간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의 길에 있다. 책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에서 동명 스님은 선사들의 선시에 대하며 일어나는 사유와 마음의 변화를 극히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선시를 읽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유해 보는 시간이다. 어쩌면 선시를 읽는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지식들과 함께 명상을 하는 가슴 벅찬 일이 될 수 있음을 일러준다. 서두에 밝힌 진각 혜심의 선시를 소개하며 우직하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자신이 갈 길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선시를 통해 부처님의 길, 불교의 길,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 것인가' ,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선사들이 남겨준 선시는 깊은 마음을 비춰주는 달빛과 같다.

"보슬보슬 보슬비가 천기를 누설하고 / 불어오는 맑은 바람 조사의 뜻 분명하네 / 따지거나 여기저기 날뛰지 말고 / 다만 시절 인연을 기다려라 -태고 보우 '어디에 머물리요 (何住)' 전문"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또 한 편의 선시를 소개한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멋진 삶의 지침이 다시 있겠는가. 송곳 끝을 감추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중도(中道)' 라고 이름한다."고 전한다.

▲저자 **동명 스님**은?

2010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 출가하여 사미계를 받았으며, 2015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구족계를 받았다. 현재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광명시 금강정사에서 살고 있다. 1989년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하여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 활동했다. 출가 전에 펴낸 시집으로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나무 물고기〉 〈고시원은 괜찮아요〉 〈벼랑 위의 사랑〉 등이 있고, 기행산문집 〈인도신화기행〉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 등이 있다.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 책 속의 밑줄 긋기

유유히 날아가는 저 갈매기의 한가로움을 비웃을 정도가 되려면, 위대한 진리인 중도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도에 얽매인다면 중도도 중도가 아닐 것이다. 중도, 중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라는 것도 중도라는 이름일 뿐이므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도가 아니라고 태고 보우국사는 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그저 날아가는 갈매기보다 한가한 선사의 여유를 마음속으로 그려 볼 뿐이다. _16쪽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처럼 자기 자신을 본다. 능력도 없고 못나기도 한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애착하기도 하며, 부족한 자신을 불쌍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항상 번뇌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약 700여 년 전의 선승 진각혜심은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그는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을 마치 우연히 만난 제3자인 것처럼 말한다. 혜심은 그림자와 마주 보며 말없이 미소만 짓는다. _20쪽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곳은 없다. 깊은 산골도 이제는 세상과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지 않다. 산중에서도 세계 곳곳을 구경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이 열려 있다. 깊은 산골이 깊은 산골이 아니듯이, 복잡한 도심이라도 복잡한 도심이 아니다. 어디에 있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곳이 최고의 청정 도량이다. _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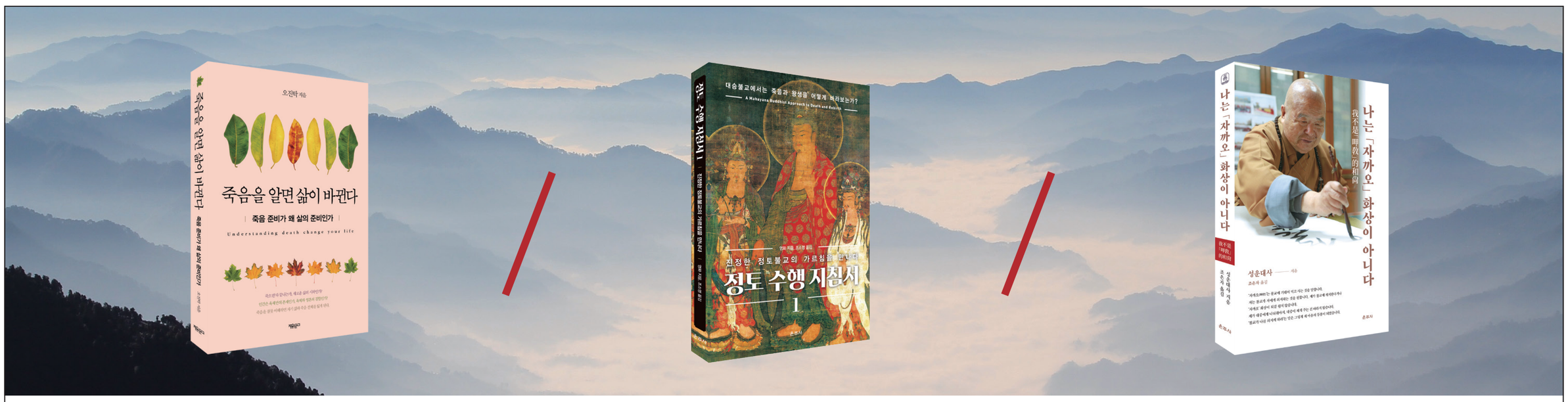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은 경전 속에도 좌선 속에도 있지만, 밤하늘에 홀로 굴러가는 달의 수레를 감상하지 못한다면, 경전 속에도 좌선 속에도 없다.

수행이란 바다처럼 맑은 가을 하늘에 유유히 떠 있는 달 한 척을 보는 것! 삶이란 가을 하늘을 서서히 달려가는 달의 수레가 오직 혼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 _73쪽

부처님의 가르침도 복밭을 열어젖힌 땅처럼 이 땅과 함께 오래되었고, 덕의 집을 열어젖힌 하늘처럼 저 하늘과 함께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발명發明' 하신 것이 아니라 '발견發見'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_117쪽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시 속에 답이 있다. 가진 것 없이 홀가분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것이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진리를 찾아 바람처럼 돌아다녀볼 것이요, 온 산천을 다 다닌 후에야, 흰 구름에 누울 일이다.

'흰 구름에 눕는다' 는 표현에 오래 마음이 간다. 도대체 흰 구름에 눕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천 개의 산을 다 밟아본 후에야 그 의미가 와 닿을 수 있을까? 그래, 우선 천개의 산에 쌓인 눈을 모조리 밟아보는 거야. 그때는 '흰 구름에 눕는다' 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그때는 나도 흰 구름 위에 누워보리라! _119쪽


웃으면서 떠나야 진짜 행복한 삶이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음은 삶과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삶을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진탁 지음/국판/376쪽/값 18,000원/자유문고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